챕터1장:

내 이름은 유리이다. 집도 평범하고 성적도 평범하다. 명문 사립 xx 고등학교 2학년이다. 공부 걱정이야 늘 하지만, 최근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. 바로 우리반 회장. 우리반 회장을 볼때마다, 어느 새 설레는 마음이 든다. 우리 반 회장은 항상 전교1등에다가 잘생겼다. 그리고 인기가 많아서 쉬는 시간에는 늘 여자가 들러붙는다.

유리: ‘오늘 아침에는 회장을 보자마자 꼭 인사를 건네는거야!’

여학생1: 안녕 회장

여학생2,3: 회장, 안녕!

회장: 하하, 얘들아 안녕.

오늘도 회장한테 인사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. 대신 내 베스트 프렌드, 마이카에게 인사를 하였다.

유리: 안녕 마이카.

마이카: 안녕? 너 시무룩해보여.

유리: 오늘도 회장한테 인사할 기회를 놓쳤으니까.

마이카: 그건 그렇고 다음주에 체육대회 있는거 알지? 너 뭐 출전할꺼야? 이때가 유일하게 학교에서 놀 수 있는 행사인데 기운내.

유리: 난 늘 똑같이 줄다리기나 해야지.

마이카: 그래? 난 2인3각 경기를 나갈꺼야. 빨리 게시판에다가 이름 쓰자.

나는 줄다리기 명단에 이름을 썼다. 근데 회장의 이름도 거기에 있는걸 보니 회장도 줄다리기에 출전을 하는 것 같다. // 쓰는 소리 ok

마이카: 오우 너 짝사랑 하는 회장이랑 같은 조 구나. 같은 조끼리는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데. 그럼 반찬을 많이 만들어서 회장한테 도시락 반찬을 권유해보는 건 어떨까?

유리: 내가 요리를 할 수 있을리가…

마이카: 방과후에 가정실 사용되니까 오늘부터 요리 특훈을 하는거야.

챕터2장

유리: 으아 고기가 탄다. 탄다…

마이카: 으아악 그러게 처음부터 센 불로 구우면 안되지//타는 소리 ok

방과후,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마이카와 매일 가정실에서 요리 연습을 한다.

유리: 그래도 이젠 제법 실력이 향상된 것 같지 않아?

마이카: 처음에 만든건 도저히 먹어볼만 하지 않았지.

유리: 마이카 너어!

바로그때 회장이 가정실 안을 들여다보며, 들어온다.

회장: 너네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해?

마이카: 바로 그건, 도시락 만들려고…읍!

유리: (마이카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) 하하, 그냥 요리 연습 중이었어. 그러고 보니 너는 왜?

회장: 학급 임원들 모이라 해서 회의했어.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한입 먹어도 되?

마이카: 당연하지! 이거 유리가 구운거다!( 구운 햄버그 스테이크를 준다)

회장: 맛있어.

유리: 정말? 좀 탔을텐데..

회장: 부분적으로 탔지만 맛있는걸. //먹는소리ok

마이카: 그럼그럼 ! 누구들의 솜씨인데 !

회장: 그럼 얘들아 안녕.

문을 닫고 나가는 회장을 나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.//문닫는 소리ok

유리: ………….

마이카: 오오, 좋아 여주야 완벽하게 연습하는거야.

왠지 마이카가 더 힘이 넘치는 것 같다.

챕터3장

아침 교실에 들어서면서 회장을 본 순간, 어떤 예쁜 여자애가 회장의 팔에 매달리는 것을 보았다.

???: 아 그러니까 오빠. 오늘 하교길에 나 카페갈껀데 같이 가자. 응?

회장: 그래그래. 교무실에 들린후에 케이크 사줄께.

유리:…. 안녕 마이카.

마이카: 안녕 여주야. 기운이 없어 보이네. 어디 아픈거야?

유리: 으응, 아니 그냥 피곤해서.

여학생1: 저 여자애는 뭐람. 회장이 들러붙어서.. 에이 재수없어. 확 우리가 나중에 쫓아가서 떼어버릴까?

여학생2: 관둬. 그러다가 일이 커지면 어떡해? 설마 회장 여친 아닐까 ??? //수군대는 소리ok

마이카: 너도 저 여자애가 거슬린다고 생각하지?

유리:아니거든!!

마이카: 하여튼 유리. 솔직하지 못하다니까.

챕터 4장

(학교 현관)

오늘은 하루종일 비가 온다. 마이카는 먼저 하교하였고, 뒤늦게 나는 우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학교 현관앞에 계속 서 있는다.

???: 오빠, 빨리 같이 가서 간식 사달란 말이야.

회장: 제로야, 안되. 오늘은 너가 학원가는 날이잖아.

제로: 칫, 오빠는 융통성이 없어. 나 먼저 간다.

제로라는 여자아이는 먼저 가고, 나는 회장과 눈이 마주쳤다.

회장: 누구 기다려?

유리: 우산이 없는데, 그냥 비가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.

회장: 나랑 같이 쓰자. 이제 곧 어둑어둑할테고.

유리: 고마워. 나는 학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쭉 가야해

회장: 나랑 집방향이 다르네. 그럼 어떡하지?

유리: 괜히 미안해지네. 가뜩이나 비도 하루종일 와서 더 우울하다.

회장: 나도 비가 내리면 잠시동안 우울해져. 하지만 그거 알아? 비가 다 내린다음,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이 가장 멋지다는 것. 난 그런 하늘과 풍경이 좋아.

유리: 위로해줘서 고마워.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?

회장: 응, 당연하지.

유리: 아까 같이 있던 여자애는 누구야?

회장: 걔는 내 사촌동생이야.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지.

유리: 괜히 오해하고 물어봐서 미안해.

회장: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네. 너 내 우산쓰고 가. 나는 편의점까지 뛰어갈께. 안녕!

유리: 엇! 잠깐!...

회장은 빠른 속도로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.

챕터 5장

오늘은 드디어 체육대회 날이다. 도시락을 전해주는 그토록 긴장되는 순간이 결국 왔다.

마이카: 나 이제 2인3각 경기 나간다. 이제 회장이랑 같은 조로 앉아서 대기하겠네.

유리: 마이카 파이팅!!

마이카는 무서운 기세로 누구보다 앞서서 결승점에 들어왔다.//함성 소리ok

이윽고 나는 줄다리기 조로 이동하였고, 점심시간이 되었다.

마음을 다잡고 회장한테 물어보았다.

유리: 회장, 괜찮으면 내 도시락 먹을래?

회장: 정말? 마침 도시락을 깜빡하고 안갖고 왔거든.

유리: 응, 사실 친한 친구랑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, 그냥 이거줄께.

회장: 유리야 정말 고마워. 너는 참 좋은 친구야.

부끄러운 듯 마이카에게로 갔다.

마이카: 성공했어?

유리: 나 보고 좋은 친구라니 성공했어.

마이카: 어.. 그건 성공한거 아닌데..

유리: 뭐, 그래도 만족해.

그렇게 마이카와 나는 크게 웃어버렸다. //웃음소리